

# IVYclub

## 21호

January, 2016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

EXO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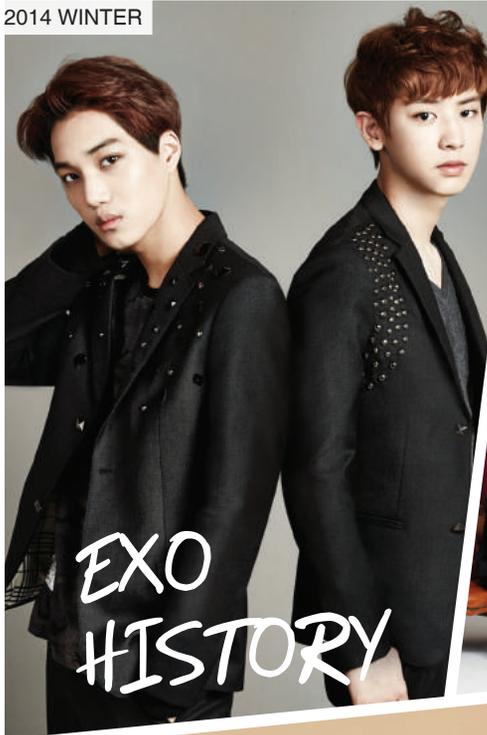
스타인터뷰 블랙비

방탄소년단

꽃-히다 박보검, 유승호, 소지섭

리솜 스파 & 리조트 할인쿠폰

2014 WINTER



2013 WINTER



2012 FALL



2015 WINTER



2016 WINTER



2015 FALL

★ ★ ★  
**IVYCLUB WITH EXO**  
**HISTORY!**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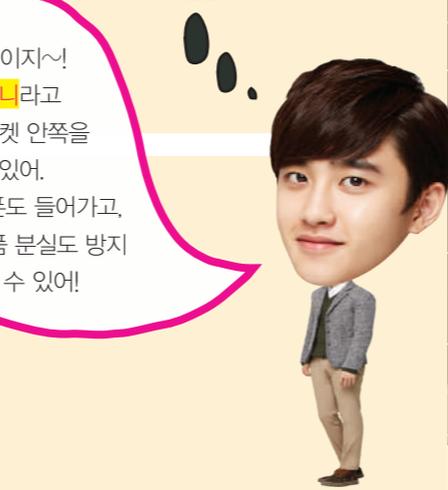
아이비클럽의 교복변천사를 보여주제!  
 그동안 매거진을 통해 보여줬던 교복들을  
 차곡차곡 모았다고~!

2012년부터 2016년  
 까지 IVYclub과 함께한  
 우리 엑소의 모습도  
 기대하시라~~!

오~ 우리의  
 변천사도  
 볼 수 있겠네?



LAY



보조개가 너무나  
이쁜 레이다~!  
교복을 전부다 정말  
예쁘게 소화해주었네.  
어?! 그런데 디오야!  
자켓 안쪽에 주머니는  
뭐야??

그건 말이지~!  
**안심주머니**라고  
레이의 자켓 안쪽을  
보면 알수있어.  
스마트폰도 들어가고,  
소지품 분실도 방지  
할 수 있어!



히  
히

힐링의 아이콘!  
레이와 함께 출발~



?!

※일부품목 제외

D.O.



디오의 자유로운 포즈를 봐봐. 교복이 진짜 편안한가보네?



4방향으로 늘어나는 4방파워 스트레치 원단 때문이지. 자유자재로 늘어나서 착용감과 활동성이 아주아주 뛰어나다구!



머~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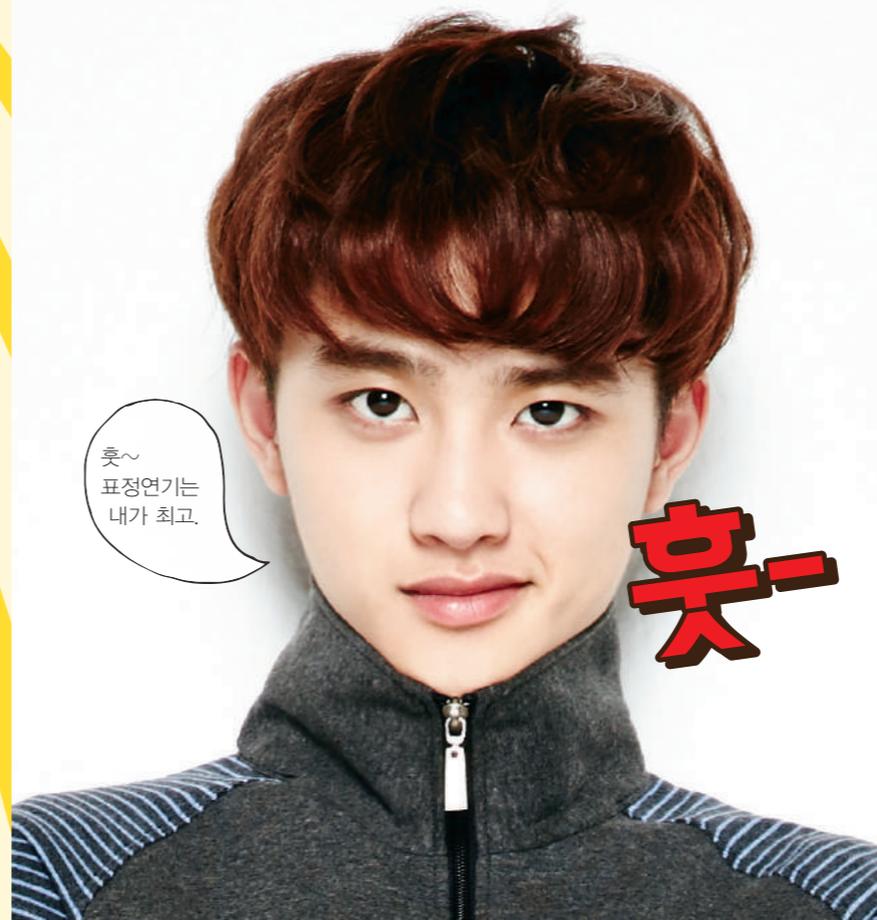
D.O. UV PROTECT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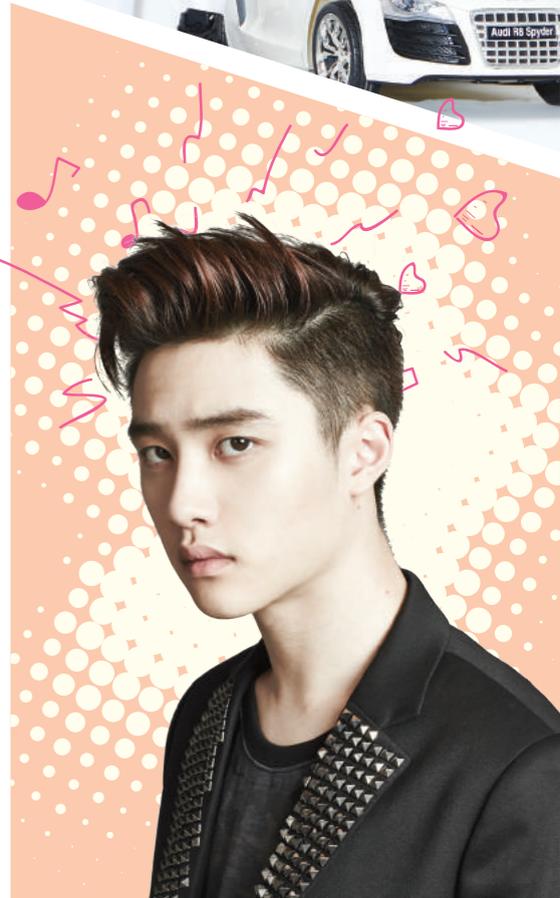


장난감 자동차를 탄 모습이 귀엽디오



훗~ 표정연기는 내가 최고.

훗-



# BAEK HYUN



오~ 멋스러운  
백현이의 Fit 좀 봐!  
어떤 교복이든  
멋지게 소화해  
내는구만~!

맞아맞아.  
아이비클럽은 **다리가  
길~어 보이는 원리**를  
이용하지. 무릎선을 높여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준다고~! 그래서 더욱더  
멋스러운 스타일을  
연출 할 수 있는  
것 같아.



우리팀의 분위기 메이커!



**빠락**  
**빠락**



**숨**  
**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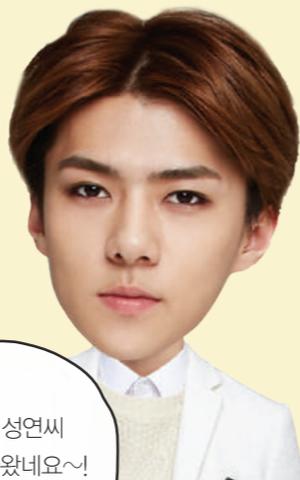
상큼 발랄함을  
제대로 표현해 주는  
천상 모델 백현.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모델 포스  
작렬~!!!

※일부품목 제외

# SEHUN



세훈이와 성연씨 사진이 잘 나왔네요~ 특히 성연씨 스커트 라인이 예쁜 것 같아요! 비법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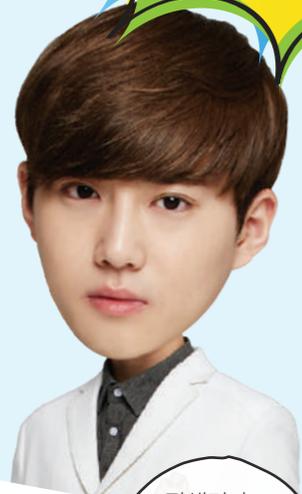
고마워요~  
**아이비클럽 슬림& 환상라인 스커트**는  
 콘솔지퍼 덕에 실루엣도 살아나고 뱃살도 쏘~옥 들어가 보여서 예쁜 스커트 핏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나저나 세훈씨의 교복 핏은 정말 남다르네요~



세훈의 패션 잇아이템 모자!



# SUHO



잘생겼다  
우리 리더~!  
자켓도 정말  
따뜻해  
보이는 걸?  
탐나네~

HERMOLITE® BRAND

우와아~ 진짜  
따뜻해 보인다!  
**써모라이트**라고 외부의  
찬 공기는 차단하고 내부  
열은 보존해 주어서  
쾌적하고, 따뜻하대.  
좋은데~?!



# XIUMIN



아니 이 분은  
엑소의 절대 동안  
시우민!!  
보아하니~  
얼굴뿐만 아니라  
바지핏도 정말  
한결같구만~!



시우민의 한결같은  
핏 유지 비법은  
**생각대로 바지**야!  
늘었다~줄었다~  
최대 8cm까지  
마음대로 조절  
가능한 바지지!



※일부품목 제외

# CHAN YEOL



미소 띤 얼굴이  
너무나 이쁘구만~  
교복도 완전 이쁘고  
따뜻해 보인다.  
찬열이 자켓은  
소재가 **울**인가??

응! 울 소재야~  
방모 : **울 80%, 램스울 15%**  
소모 : **메리노울 60%**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촉감이  
너무 너무 부드럽고 보온성이  
아주 뛰어나지!



I ♥ U



꽃을 든 남자~★



수줍



밝은 표정으로  
즐겁게~



히히



※일부품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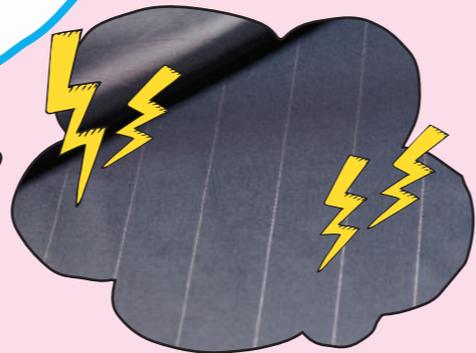
# 첸첸



첸 안녕~  
수호 형도 안녕~  
웃는 얼굴의 첸은 정말  
나만큼이나 러블리한  
걸? 근데 첸이 입은  
자켓의 안감은 뭐지?  
특별해 보이는데??



**은사 스트레치 안감**  
이라고 정전기방지,  
신축성있는 스트레치  
안감에 항균 효과까지  
있는거야. 저게 더  
좋아 보이니깐  
나도 갈아입으러  
가야겠다.



상큼발랄 비타민 첸

I ♥ U

♥♥ Lovely ♥♥



아~

상큼한 표정연기를  
보여주는 개구쟁이  
첸첸첸!



히트

# KAI



우리 카이~  
시크한 줄만 알았는데  
웃으면 또 이렇게 이쁘  
잖아? **입체패턴**이라  
그런가? 자켓핏도  
남다르고 멋있는데~?

맞아 진짜  
귀여워~! 자켓은  
**3D 입체패턴**을 이용해서  
편안하고 S라인 실루엣에  
슬림한 핏을 완성시켜  
준대~! 역시  
아이비클럽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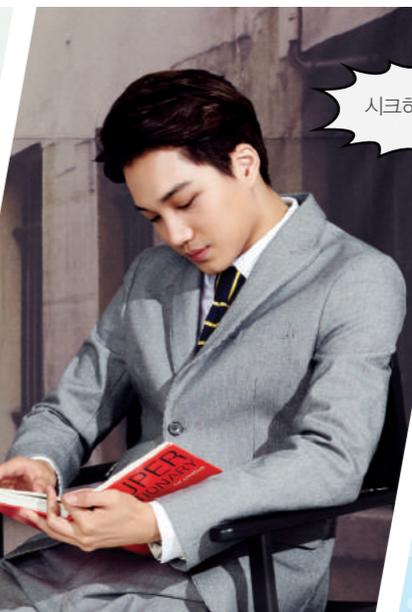
시크한 줄만 알았지?  
귀여움도 있다카이~

## 키릭!



카이의 거미줄을  
받아라!! 얌!얌!

## 숨~



시크하게 한 컷~!

※일부품목 제외





## 유권

**Q 2015년에 바스타즈로 유닛 활동을 했는데, 유권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나.**

A 블락비의 유권이라는 사람을 알아봐 주셔서 내겐 정말 좋은 기회였다. 블락비로 활동하다 보면 지코나 피오. 태일이 형이 주로 보이기 마련인데 바스타즈로 활동하면서는 두 명이 노래를 하나 나를 좀 더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좀 더 가창력을 키워서 더 맛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Q 유권의 2015년은 어떤 한 해로 정의 내릴 수 있을까.**

A 2015년? 흠 지나간 거 같다. 2015년에 뭐 했지? 하하. 나를 많이 돌아본 해였다. 나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그 부족한 점을 위해 많이 노력했던 거 같다.

**Q 2016년 계획은 잡았나.**

A 아직은 없다. 일단 2015년은 뮤지컬로 잘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음 내 목표는 항상 같다. 노래 실력을 늘리는 거. 매년마다 목표 하는 거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 좋은 거울을 보면서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데 노래는 그 실력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 뮤지컬을 하면서는 성량 좋게 노래하고 싶고, 바스타즈나 블락비를 하면서는 느낌 있게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잡는 게 힘든 일인 거 같다.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블락비 활동을 기다리고 있는 팬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A 지코의 곡이 나오는 대로 (웃음) 앨범을 준비해서 완전체 모습도 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어디 떠나가지 말기! 요즘에 맛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한테 눈길 돌리지 말고 하하.

## 박경

**Q 솔로곡 '보통연애'를 냈을 때의 기분을 상하게 본다면.**

A 발매 예정이었을 때부터 너무 좋았다. 내 음악을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다. 1위를 할 거란 생각은 못했지만, 좋아해주실 거라는 자신은 있었다. 노력한 만큼의 피드백이 돌아온 것 같아서 감사했다.

**Q 팬미팅 도중에 MBC '음악중심' 1위 소식을 듣지 않았나.**

A 팬미팅에서 두 곡을 남겨 놓고 맘 닦으러 나갔는데 그때 스태프들이 1등을 했다고 말해주었다. "경아, 너 1등이야 1등!" 그 말에 소름이 계속 돌아서 무대에 집중을 못했다.

**Q 블락비로 활동하며 1위했을 때와는 기분이 또 달랐을 거다.**

A 경아, 네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잘 참았어 그러니 선물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 멤버들과 같이 음악을 오래 해 오기도 했고, 팀이 잘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내 색깔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거든. 항상 한 발 물러서 있었다. 1위는 그 기다림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Q 작업 하는 스타일은 어떤가.**

A 해야지 해야지 하며 스스로를 압박해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2~3일 정도 놀다가 하루 작업실에 갔을 때 한 곡 만든다. '딱' 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매일매일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 그래야 에너지가 계속 있을 수 있는 거 같다.

**Q 2016년은 어떻게 보낼 계획인가.**

A 일단은 1년 반 동안 블락비 활동을 안 해서 블락비 활동을 하고 싶다. 이게 제일 우선이다. 그리고 이번에 지코가 솔로로 첫 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했는데, 나도 기회가 된다면 솔로로 미니 앨범도 내보고 싶다. 그리고 예능 활동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Q 마지막으로, 벌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A 많이 힘들걸 안다. 그래도 그 기다린 시간 만큼의 퀄리티와 무대로 꼭 보답하겠다. 사랑한다.

## 피오

**Q 일단, 근황부터 물어야겠다.**

A 곡 작업하고 있고, 2월쯤에 연극을 하게 될 거 같다. 고등학교 때 같이 연기했던 친구들이랑 계속 관련해서 회의 중이다. 우리가 대본도 쓰고 다 하게 될 거다.

**Q 원래 연기 쪽에 관심이 있었나.**

A 중학교 때 연기 학원에 다니며 관심이 있었다. 이번에 마침 시간도 되고 해서 친구들이랑 함께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Q 곡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A 민호(위너 송민호), 현대(인크레더블)랑 같이 하고 있는데 잘해서 나중에 다 같이 좋은 곡을 많이 들려드리면 좋을 거 같다.

**Q 2015년에 비범 유권과 함께 바스타즈 활동을 했는데, 유닛 활동으로 피오가 얻은 건 뭐였나.**

A 뭔가를 얻었다기 보다, 바스타즈는 팬들을 위한 활동이었다. 블락비 휴식기가 길지 않았나. 팬들이 많이 지치셨을 거라고 생각했다.

**Q 블락비의 막내이지 않나. 그렇기에 더 보여주고 싶지만 못 보여준 것들이 후시 있다.**

A 막내이기 때문에 못 보여준 건 없지만 나머지 형들이 바쁘게 활동하는 것들이 있으니 내가 조금은 천천히 보여줘야 하는 경향은 있다.

**Q 기대하겠다. 2016년은 어떻게 보냈으면 하나.**

A 2015년보다 팬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기분 좋은 바쁜 일이 많았으면 한다.

**Q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해 본다면.**

A 본의 아니게 2015년에 블락비 활동을 못 했지만 유닛이나 솔로로 열심히 활동했다. 그 외적으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2016년에는 기대를 많이 해도 좋을 것 같다.



## 태일

**Q 태일의 2015년은 어땠나.**

A 2015년이라. 블락비가 2015년에 앨범을 낸 건 아니지만, 내 솔로곡이 공개됐던 해고, 혼자서 노래하는 프로그램에 나가기도 했다. 지금까지 블락비로 활동하면서 2015년에 솔로로 노래하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줬던 것 같다.

**Q 솔로곡 '흔들린다'를 발표했을 때, 느낌이 어땠나.**

A 아, 기분 진짜 좋았다. 순위가 높게 나오진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앨범이 나왔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첫 번째이기도 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기억에 남을 거 같다.

**Q 앞으로 뭔가 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A 비밀이다. (웃음) 그런데 솔로곡을 내게 되면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회사에 말해 놓은 상태다. 그분들과 내가 시간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거라서,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다.

**Q 그래도 계획 중이라면, 곧 접할 수 있겠다.**

A 2016년 봄-여름 쯤? 말하기엔 아직 조심스럽다.

**Q 2016년은 어떤 한 해가 되었으면 하나.**

A 일단은 블락비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탈 없이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거 같다. 건강하게 잘 지내면서 지금보다 더 잘 되어야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블락비 멤버 각자가 영향력을 지니는 위치가 됐으면 좋겠다.

## 재효

**Q 2015년에 처음으로 연기를 했다.**

A 처음 하는 거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칭찬을 많이 들어서 기분이 좋다. 이젠 발음 교정 학원에 다니려고 한다. 아무리 볼펜을 들고 연습해도 발음이 잘 안 고쳐지더라.

**Q 어떤 한 해로 기억될 거 같나.**

A 새로운 도전이 많았던 해다. 뮤지컬 '런 투 유'도 했고, 웹 드라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도 했고.

**Q 도전이라 하면, 원래의 재효를 깨고 나왔다는 의미인 건가.**

A 그동안 내가 많은 모습을 못 보여드렸으니까 원래의 재효를 보여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Q 2015년을 지나오며 더 해보고 싶은 것들이 생기기도 했다.**

A 솔로 앨범도 내보고 싶고, 뮤지컬 작품도 더 해보고 싶고, 그리고 보니 2015년엔 잡지 '맨즈X스'도 찍었네. 2016년엔 표지를 찍어 보도록 노력하겠다! (웃음)

**Q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찍은 사진, 봤다. 운동은 얼마나 했다.**

A 식단 한 달, 운동 한 달 해서 몸을 만들었다. 요새는 식단을 조금 풀어서 하고 있던 한데 운동은 계속하고 있다. 언제나 준비가 돼 있다! (웃음) 그때보다 아마 더 좋아졌을 거다.

**Q 부모님에게 재효는 어떤 아들인가.**

A 위에 형이 한 명 있고 내가 둘째(막내)인데, 원래는 되게 무뚝뚝한 아들이었다.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이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새 딸 같은 아들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애고는 없지만 부모님한테만큼은 좀 하려고 노력한다.

**Q 2015년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던 것 같다. 2016년엔 무엇을 기대하나.**

A 한 걸음 나아갔으니 두 걸음 세 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비범

**Q 2015년은 어떻게 보냈나.**

A 블락비의 첫 유닛인 블락비 바스타즈(이하 바스타즈) 앨범이 나와서 재미있었다. 그런데 블락비로는 활동을 못해서 아쉬움이 크기도 하다.

**Q 바스타즈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비범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A 블락비에 저런 멤버도 있었구나, 정도였던 거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활동을 해 보면 좋겠다.

**Q 웹 드라마 '점핑걸'에서 잘 나가는 스타 서아신을 연기하기도 했다.**

A 하하하. (유)경이랑 같이 출연했다.

**Q 연기를 해보니 어떤가.**

A 어쭙게 해서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겠다.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많이 어려웠는데 캐릭터 자체는 좀 편하게 다가왔다. 아.. 너무 '발' 연기였다.

**Q 유닛 활동에, 연기에, 앞으로 더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나.**

A 연기적인 것도 그렇고 춤 적인 것도 그렇고 음악적인 것도 그렇고, 다 열심히 준비를 좀 더 해서 언젠가는 그것들을 조금씩 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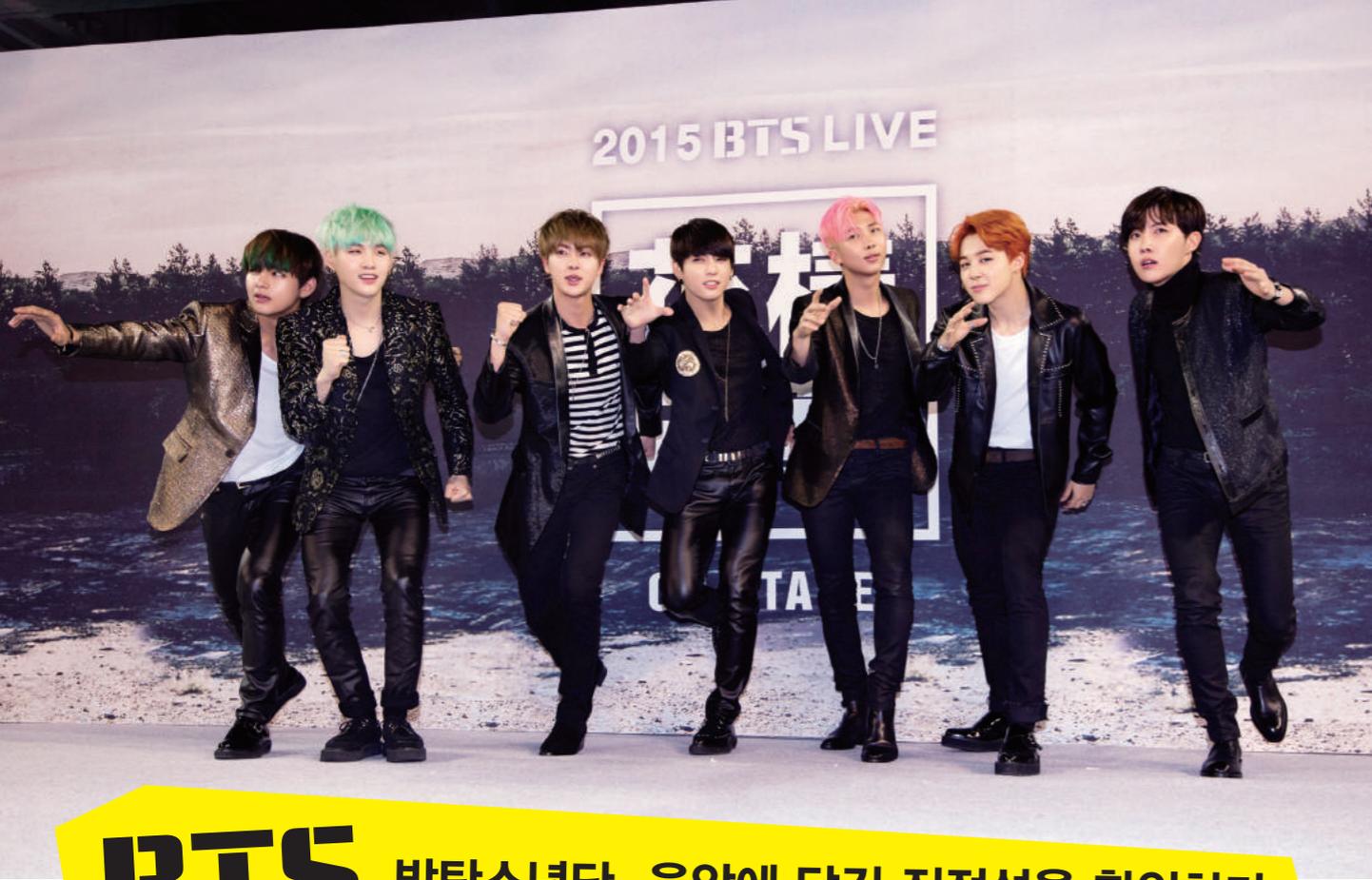
**Q 아... 요새 어떻게 지냈나. 이것부터 물어봤어야 했는데. (웃음)**

A 집 앞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PT도 받고, 친구들이랑 음악 작업 같은 걸 조금씩 해보고 있다. 아직 곡을 쓰는 건 아니고 옆에서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 생겨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정도다. 친구가 '9개의 방, 빛으로 깨우다' 전시회 티켓을 줘서 그것도 보러 가려고.

**Q 2016년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나.**

A 뭔가 '한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팀으로도, 개인적으로도. 2015년에는 바스타즈가 있었으니 내년에도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결실, 결과물이 있었으면 한다. 열심히 해야지.





# BTS 방탄소년단, 음악에 담긴 진정성을 확인하다

방탄소년단은 11월 27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2015 BTS 라이브 '화양연화 온 스테이지(on stage)'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콘서트를 전회 매진시키며 성장한 인기를 증명했다. 랩몬스터는 "팬들이 열정적으로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다. 공연장이 커져서 무대도 땡땡하게 만들어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날 랩몬스터가 팬들에게 건네는 말 속에서 방탄소년단 음악이 지닌 힘과 진정성을 모두 느낄 수 있었다. 랩몬스터의 말을 그대로 옮긴다.

"가수는 제목따라 가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 니드 유(NEED U)'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외쳤더니 많은 분들이 팬이 됐어요. '런'을 만들고 보니 뮤직비디오에서 달리는 장면을 하루종일 찍었어요. 노래 제목처럼 되는 것 같아요. 앨범 제목이 '화양연화'고, 청춘에 관한 노래예요. 청춘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처럼 우리를 좋아해주는 팬들도 그렇고, 음악을 만드는 저희들도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돼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에너지를 얻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화양연화'를 보면서 각자의 '화양연화'를 생각하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랩몬스터



슈가



진



지민



제이쿵

2시간이 넘도록 아이컨택이 이뤄졌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꿀이 흘렀다. 방탄소년단과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가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장식했다.



정국

방탄소년단은 27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화양연화 온 스테이지(On Stage)'를 개최했다. 이날 4,000명의 팬이 모여 만든 아미봉의 은빛 물결이 방탄소년단의 찬란한 청춘에 환호했다. 방탄소년단도 오랜만에 만난 국내팬들에 감격한 모습이었다. 정국은 "함성 소리가 너무 그리웠다"고 인사를 건넬으며, 제이쿵은 공연 중간중간 깜짝 애교로 선물을 줬다.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는 '기승전결'이 아닌 '기결결결'의 모습이었다. '잡아줘', '렛미노우(Let me know)' 등 발라드풍 노래로 감미롭게 콘서트의 포문을 연 방탄소년단은 폴베드 사운드에 맞춰 가볍게 몸을 흔들며 팬들과의 적극적 교감에 초점을 뒀다. 마치 콘서트 엔딩 무대가 연달아 계속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짜임새 있는 퍼포먼스로 공연을 충충히 채우기 보다 팬들의 때장을 유도하면서 팬들과 방탄소년단이 함께 완성하는 콘서트가 됐다.

이번 콘서트의 백미는 역시나 신곡 무대였다. 새 앨범 타이틀곡 '런'과 수록곡 '버터플라이', '마시티(MaCity)' 무대가 공개되며 감동을 자아냈다. '런'은 방탄소년단의 전매특허인 퍼포먼스가 잘 녹아들면서 달리는 모습과 나비를 형상화한 군무가 인상적이었다. 이후 '버터플라이' 속 랩몬스터의 처절하면서 강렬한 랩, '마시티' 진정성 담긴 멤버들의 노래가 새 앨범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였다. 팬들에게 최초로 공개한 신곡 무대인 만큼 뜻 깊은 순간들이 콘서트를 빛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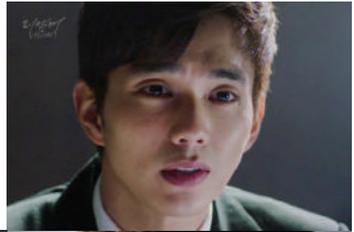
이번 콘서트는 기름기 짝 뽀 땀 뻘 땀 같은 맛을 냈다. 각 맞춘 칼군무보다 무대 위를 즐기는 흥탄소년단의 연속이었다. 방탄소년단이 그동안 음악방송과 연말시상식 등에서 보여줬던 강렬한 퍼포먼스를 확인하고 싶은 이들에겐 아쉬울 수도 있겠다. 대신 앞으로 펼칠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활동과 연말 무대가 있다. 힘을 뺀 듯 보이는 퍼포먼스에도 멤버들 얼굴엔 땀이 비 오듯 흘렀다. 얼마나 열정을 쏟은 것일까. 찬란한 청춘의 땀방울이 빛났다.

## 꽃-히다

[동사] '네게 필(Feel) 꽃히다'의 준말. '너를 본 순간 너는 내게 와 꽃이 되었어, 그래서 이 사랑을 줄줄이 엮어 네게 잔뜩 건네고 싶어'라고 외치고 싶을 만큼 상대에게 순간적으로 훌쩍 반해버렸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사랑에 쉽게 잘 빠지는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자주 말할 수 있는 단어로, 가슴 속에 넘쳐나는 태평양 같은 무한한 사랑과 욕망을 거침없이 풀어놓을 수 있는 '꽃히다'는 여러모로 유용하고 고마운 말이 되어줄 것이다. 한 달에 한 번만 이곳에서 사용될 예정으로 나의 사랑이 값싼 애정으로 치부되는 것을 막아줄 든든한 보호막이다.

## 유승호, 변호사가 된 승호 '넘나 멋진 것'

SBS '리멤버-아들의 전쟁' 1화 도입 부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아빠(전광렬)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기 위해 변호사가 된 서진우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빠 앞에 앉아 변호인이라고 소개하며 이야기를 이어가던 그 장면 말이다. 서진우를 연기한 유승호가 그리 연기를 잘하는 줄, 미처 몰랐다. 그의 눈엔 내내 슬픔이 깃들어 있었고, 그 와중에 한없이 공허하기도 했다. 이후, 처절할 땐 너무나 처절하게 상황에 몰입해 극의 집중도를 높였고, 인물의 감정을 표백시켜야 할 땐 철저히 거뒀네 깔끔하고도 굳더더기 없는 연기를 선보였다.



일례로, 명탐정 설록에 빙의한 듯 자신의 기억을 확인해 소매치기범을 밝혀나갈 땐 추리 소설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클라이막스 장면을 읽는 기분마저 느끼게 했다. 통쾌했다. 그는 한 드라마 안에서 여러 장르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이쯤 되면 다양한 상황과 정서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만능 배우라 불러줘야 하는 건 아닌지. 군대도 다녀왔으니 이젠 그의 연기를 지켜볼 날만 남았다. 이 어찌 좋지 아니한가.



## 박보검, '최택' 그 이름 길이길이 기억되리

박보검의 양가적 매력은 tvN '응답하라 1988(이하 응팔)' 이전, KBS2 '너를 기억해'에서 이미 빛을 발했다. 그가 연기했던 정선호는 선과 악, 양극을 오갔지만 결국 그는 그것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강아지처럼 선한 눈망울을 지녔음에도, 감성의 완급조절을 통해 스펙트럼 넓은 연기를 선보일 수 있었다. '응팔'에서 박보검이 맡은 천재바둑기사 최택 역시 '너를 기억해'에서와 같이 상반된 매력을 지닌 인물이다. 예민함과 날카로움을 지닌 반면, 한없이 천진하다. 이런 역을 연기할 때 배우에게 요구되는 것은, 두 성향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넓혀 더 극단적으로 보이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그것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자연스럽게 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할 것인가, 이다. 박보검은 가면의 앞 뒷면을 바꿔 쓰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말투, 행동, 눈빛, 모두 다 다른 사람 같았지만 결국엔 최택 한 사람으로 귀결되게끔. 그러나 잘생긴 얼굴뿐이었다면 그가 연기하는 최택에게 이리 열광하진 않았을 게다. 분명.



## 소지섭, 멜로 왕자의 눈빛은 사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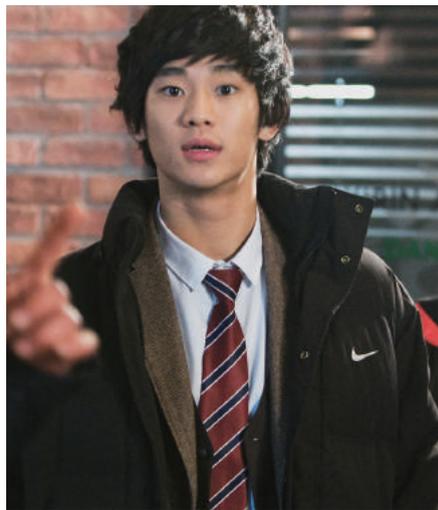
KBS2 '오 마이 비너스'를 보며 소지섭의 매력이 뭘까, 라고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보이는 그대로, 소지섭 그 자체로, 모든 게 설명되었다. 소지섭이 연기하는 캐릭터, 존 킴이 강주은(신민아)에게 "황금 수저 물고 태어난, 있는 집 자식"이라고 말해도, "설마 내가 배고 뒀는 걸 내뺐을까"라고 해도, 잘난 척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알미워 보이지 않았던 건, 소지섭이란 배우 자신이 풍기는 신뢰감에 기인했다. 드넓은 어깨에 다부진 몸매가 빛내 전달하는 든든함과 저음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완성되는, 어떤 탄탄한 믿음. 여기에 깊은 감성이 깃든 그의 눈빛이 더해지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의 완벽한 장면을 완성해내게 된다. '너한테 반했어'라거나 '네가 좋아'라는 말로 누군가에게 빠져든 순간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누워 눈으로 상대를 지그시 바라보고 희미한 웃음을 지어보이는 것만으로도 멜로가 완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게, 소지섭이다.



# 김수현 VS 남주혁



잘생긴 줄만 알았는데,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는 외모가 있는데!! 이 스타들... 아이비클럽 교복을 입었었다고?



입었었다는 사실. (오, 놀라워) 아이비클럽 교복을 입고 주연을 맡으면 다들 인기를 얻게 되는 건가. (그렇다면 저도, 한 번 입어보겠습니다...) 모델 출신답게, 교복만 입었을 뿐인데도 슈트를 입은 것 같은 착각을 주기도 했고, 런웨이에 설 때면 모델 포스 충만하고, 브라운관에서는 배우의 얼굴 제대로 드러내니, 소녀들이 열광하지 않고 배기라. 김수현과 남주혁, 서로 다른 개성을 지녔지만, 매력만큼은 확실한 두 사람. 그들을 성장시킨 드라마 속에서의 아이비클럽 교복패션과 현실 속에서의 패션을 비교해 매력을 살펴본다.

김수현이 연기한, KBS2 '드림하이'의 송삼동을 잊지 못한다. 더벅머리에 '깡깡이'(균용 내피)를 입고는 해맑은 웃음을 지어 보이던 시골 소년이 멀끔하게 머리를 다듬고 교복을 입던 순간은 그야말로, '메이크 오버' 프로그램을 보는 것만 같았으니깐. 얼마나 교복이 잘 어울렸던지, 이 오빠, **아이비클럽 교복 모델** 까지 하셨단다! (우와, 대단해.) 김수현이 1988년생이니, 2011년에 방영된 '드림하이'에 출연했을 당시 그의 나이는 스물넷. 어색함 하나 없이 교복을 소화한 김수현에게 '교복 패셔니스타' 정도의 칭호를 붙여도 과언은 아닐 듯했다.

그의 스타 행보에 있어 '드림하이'가 탄탄한 디딤돌이 되어준 셈이다. 하여, 김수현의 일거수일투족은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고, 그의 옷 스타일, 헤어스타일 하나에도 언론의 이목이 집중됐다. 스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은 그 마음, 너도 알고, 나도, 잘 알지 않나.

김수현이 '드림하이'로 톱스타 반열에 오른 기반을 닦았던 것처럼, **그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예비 톱스타**가 있다. 바로, 남주혁! 둘 사이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역할로 주목받았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 교복을 입어도 멋져, 멋져 ▶ 브라운 수현 VS 그레이 주혁



김수현이, 아니 김수현이 연기한 '드림하이'의 송삼동이 '훈남'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건, 그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기린 예고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다. 물론, 무엇으로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잘생김'은 어쩔 수 없다만, 남자에게 있어 '웃발'과 '머릿발'은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던가. '삼동이' 김수현 역시 그랬다. '드림하이'에서 몸에 꼭 맞는 브라운 색상 계열의 아이비클럽 교복을 입고 변신한 김수현은 만약 그가 길거리를 거닐고 있다면 캐스팅하고 싶어지는 '훈고딩' 그 자체였다. 김수현의 프로필상 키가 180cm이라, 다리아 워낙 길겠지만, 교복을 입고도 슬림하면서도 길어 보이는 다리는 모델 못지 않아 보였다. 움직임에 관한 입체 패턴을 적용하고, 무릎 선을 높인 아이비클럽 교복의 힘도 있었던 게 아닐까 또한, 흰 셔츠에 매치한 스트라이프 패턴의 넥타이는 뎀디함을 강조해, 영국 학생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브라운으로 통일감을 준 교복은 예술고등학교라는 극중 배경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여겨지게 만들었다.



**Brown VS Gray**



남주혁이 주목받는 계기가 된, '후아유'의 한이안은 어떤가. 단정한 머리 스타일에 그레이와 진 네비로 톤을 맞춘 교복을 입고 등장한 한이안은 금방이라도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만 같았다. 김수현과 마찬가지로 **교복을 즐기거나 변형하지 않고, 자신의 신체 사이즈에 꼭 맞는 교복을 입은 한이안**은 단정하면서도 깔끔한 인상을 전했다. 첫사랑 은별을 향한 울긋은 마음은 (후에 동생 은비로 그 마음이 급진화하긴 했지만) 그의 옷차림 새 하나만으로도 짐작 가능했다.



# 현실 속 모습도 매력 만점 ▶ 슈트 수현 VS 캐주얼 주혁

슈트 색이란 이런 걸까. 드라마 속이 아닌 곳에서의 김수현은 멀끔한 슈트가 너무도 잘 어울리는 남자다. 각종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선보인 다양한 슈트 차림은 김수현의 비주얼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블랙 컬러와 같이 심플한 스타일의 의상부터, 조금은 독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도트 프린트까지. 블랙 슈트를 입었을 땐 슈트의 정석을 보여줬다. 넥타이도 블랙으로 통일, 헤어스타일도 바람이 불어도 절대 날리지 않을 것 같은, 리전트 헤어스타일로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발랄함이 느껴지는 도트 프린트 상의를 입었을 때 그는, 긴 목이 두드러져 보일 수 있는 셔츠를 매치해 섹시함을 강조했다. 헤어도 의상과 어울리게 자유분방하게, 신발도 캐주얼한 캔버스화를 착용했다.



Suit  
VS  
Casu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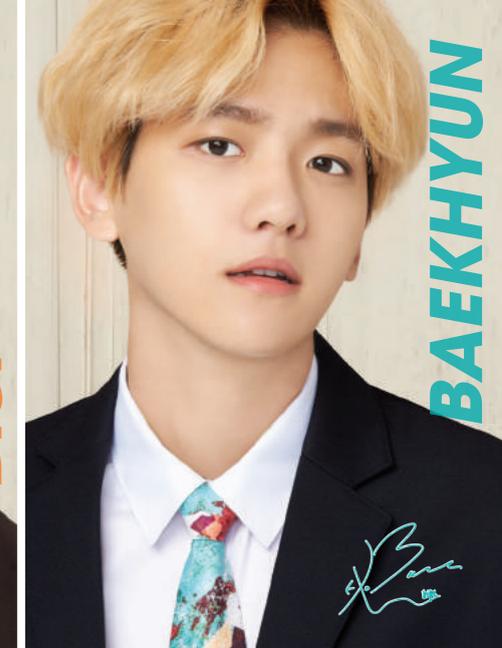
김수현이 슈트라면 남주혁은 캐주얼. 평소 남주혁은 빈티지를 좋아해서 빈티지 샵에서 쇼핑을 자주 하는 편이다. 유니크한 옷들, 딱 한 벌밖에 없는 자신만의 옷을 '뉘는' 기쁨을 아는 남자다. (남주혁, 푸른 여름을 담은 '200%' 소년)이 궁금해 인터뷰 중) 현실에서의 남주혁은, 함께 쇼핑하기 좋은 진정한 '남친' 스타일이다. 그런 그도 런웨이에서는 모델로서의 얼굴을 보이며 옷에 맞는 애티튜드를 선보인다. 유니크한 남방, 일러스트가 그려진 니트 등을 원래 자기의 옷인 양 소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드라마에서도 현실에서도 출중한 패션 감각을 뽐내는 김수현과 남주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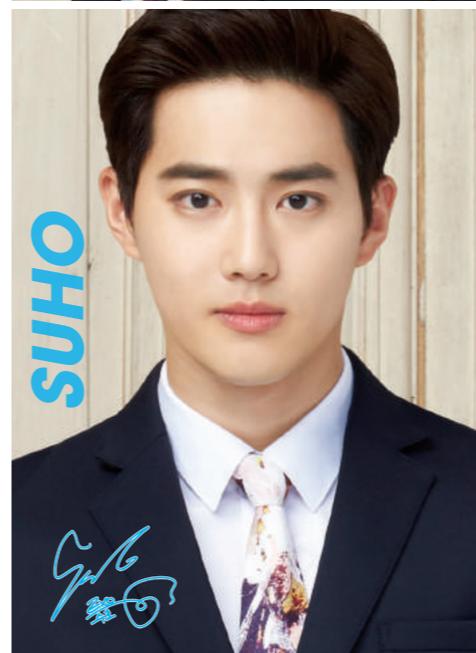
XIUMIN



D.O.



BAEKHYUN



SUHO



CH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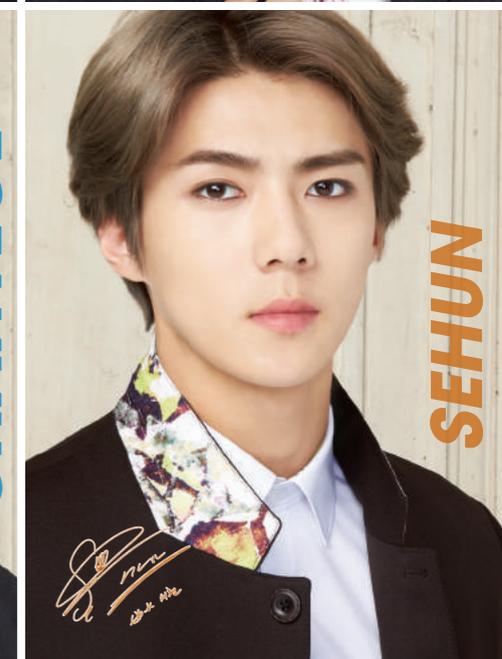
LAY



KAI



CHANYEOL



SEHUN

# 촉촉 텐텐

## 건강하고 예쁜 손 만드는 간단한 마사지 관리법

### 나이를 말해주는 손!

내 나이보다 빨리 노화될 수 있는 손을 보호하고 매일 가꾸는 방법을 알아보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핸드크림을 자주 발라주는 거야  
깨끗하게 씻고 난 후 건조함을 막기 위해 휴대하며 발라주는 센스가 중요해!  
여기까지는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지만 바르게 바르는 방법을 잊어서는 안된다구!  
보통 손바닥에 짜놓고 문질러서 바르는데 이는 영양성분이 손바닥에 모두 스며들 수 있으니 손등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아.



준비물: 핸드크림, 오일

**Step 1**  
핸드크림을 오일과 섞어서 바른 후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 반대쪽 손등을 문지르듯 쓸어 내리기를 반복한다.

**Step 2**  
엄지와 검지로 손가락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타원형으로 굴리듯 마사지하면서 손톱쪽으로 내려온다. 이 동작은 굳살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Step 3**  
엄지와 검지로 손톱 주변을 문질러주면서 손톱 아래부분을 지압하듯이 힘껏 누르며 뺀다. 혈액 순환을 촉진해준다.

**Step 4**  
손바닥을 펴고 손가락 바로 아래 쪽의 손가락 끝 쪽을 일직선으로 누르며 밀어준다. 소화가 잘 안된다고 느껴질 때 효과적이고 소화 기능을 개선해 준다.

“건강하고 예쁜 손을 만들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잠깐이라도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아.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 혈색을 맑게 하고 굳은살도 방지할 수 있어. 여자의 두 번째 얼굴인 손만큼은 예뻐지게 하고싶다는 너희들을 위해!”



**Step 5**  
손가락을 잡고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천천히 젖히고 2~3회 반복한다. 손가락이 가늘고 예뻐지는 효과가 있다.

**Step 6**  
손바닥끼리 부딪혀 깍지를 낀 후 손바닥에 마찰이 생기도록 비벼 준다. 손바닥의 주름을 방지해준다.

## 아이비클럽과 리솜리조트가 함께하는 겨울 SPA 초대 이벤트

가족과 함께 떠나는 겨울 여행!!  
아이비클럽 방문하고 리솜리조트 가져!!



### EVENT 1. 홈페이지에서 만나는 참여 이벤트

아이비클럽 매장에 가족과 함께 방문한 인증샷 남기고, 리솜리조트로 스파 가족 여행가자!  
엄빠도 누나,형 모두 아이비클럽에서 함께한 사진이라면 OK!

**1등**  
리솜스파캐슬 이용권  
리솜 스파캐슬 이용권 1명  
(숙박/스파/4인기준)

**2등**  
리솜리조트 스파 무료이용권  
리솜 리조트 스파 무료이용권 10명  
(1인2매)

이벤트기간 : 2016년 1월 18일 ~ 3월 31일 (티켓 유효기간 6월 30일까지)  
※ 자세한 참여방법은 아이비클럽 홈페이지 참고



### EVENT 2. 아이비클럽 매거진 21호 속 숨어 있는 깜짝 이벤트

아이비클럽 매거진 21호 안에 담긴 리솜리조트의 깜짝 스파 할인 쿠폰을 확인하세요.

### 아이비클럽과 리솜리조트가 함께하는 SPA 할인 제휴 이벤트

아이비클럽 방문하고, 가족과 함께 떠나는 리솜리조트 SPA 여행 ~!



- 1) 사계절온천테마파크 (충남덕산)  
리솜스파캐슬 천천향 SPA 할인권 (50%)
- 2) 9가지 힐링테마 (충북 제천)  
리솜포레스트 해브나인힐링 SPA할인권 (45%)

-본 티켓은 할인권 스파 당일에 한하며, 유효기간 내 사용 가능 (1매 4인까지)  
-본 할인권은 이용을 원하시는 리조트 내 스파시설을 1회 한해 할인 가능  
-입장요금 할인에 한하며, 제휴카드 및 타 쿠폰과 중복할인 불가  
-유효기간 : 2016년 6월 30일까지 (목)

문의) 천천향 041)330-8062,8064 / 해브나인힐링 043-649-6014

다리가 기어 올리는 한쌍의  
아이비클럽



**IVYclub** 아이비클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3 트윈타워빌딩 A동 2F 080-527-7655 | 080-461-8881 | [www.ivyclub.com](http://www.ivyclub.com)

제작 아이코나츠 [www.iconarts.co.kr](http://www.iconarts.co.kr)